

제10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정예 디지털 육군 건설을 주제로 75편의 연구 논문 발표



이어서 임치규 합참 전력 기획부 차장의 「육군의 장기 전력구조 발전방향」, 박준호 이오시스템 부회장의 「과학기술과 군 소요의 신속한 접목」, 김성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의 「로봇기술과 무인전투체계(차량)」의 초빙강연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 국방마트 2002와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2002 행사와 같이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한층

국방 과학연구소, 육군 교육사령부와 한국방위 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후원한 제10회 지상무기체계발전세미나가 지난 10월 18일 산·학·연·군 관계자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과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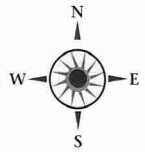
「정예 디지털 육군 건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지상무기체계발전세미나는 1992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금년으로 열 번째를 맞이 하였는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빙강연 3편, 8개 분과별 주제발표 등 지상무기체계개발과 관련한 논문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용득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정남기 국과연 상임감사가 대신 읽은 환영사에서 “이번 주제 발표를 통하여 미래 지상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연구개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류해근 육군 교육사령관은 개회사에서 “군의 소요제기와 관련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창구는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하였다.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체계 분과 I, 체계 분과 II, 기동/화력 분과, 방호/구조 분과, 탄약/소재 분과 I, 탄약/소재 분과 II, 유도/항공/기타 분과와 정보통신/시험평가 분과 등 8개 분과 7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예년과 달리 체계개발과 관련된 체계분과의 주제 발표를 중점으로 발표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미래 무기체계개발과 관련하여 핵심기술 체계로의 전환과 접목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지상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미래 무기체계개발방향에 대한 기술 정보들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지상무기체계 개발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산업체, 학계 연구소 및 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더욱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2 국방 품질보증 학술 세미나 열려

군수품 성능 및 품질개선 발전 방향 모색

국방 품질관리소는 지난 9월 27일 권영호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육·해·공군 및 관련기관, 방산·군수업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단계에서의 효율적 성능 및 품질개선」이란 주제로 2002년 국방품질보증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 무기체계의 확보를 통한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군기술의 겸용화와 아울러 획득 전순기에 걸친 성능 및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만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밑거름임을 인식하여, 21세기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완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원형 국방품질관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 과학 기술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군수품 개발후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개선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전투력 발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관 모두가 지혜를 발휘하여 군수품 품질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금번 학술세미나는 국방품질관리소 업무소개에 이어 기관별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제발표는 품관소, 국과연, 국방연, 국방대, (주)로템, 삼성탈레스 등 국방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전문가까지 참여하였다.

기관별 발표에서 김용섭 품관소 책임연구원은 「양산단계에서의 효율적 품질/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에 부합하는 군수품 품질/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비롯한 총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이어 김동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단계가 연계된 체계적 품질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주성종 국방연구원 박사는 「군수품 단종부품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김철한 국방대학교 교수는 「무기체계 지속적 품질개선을 고려한 획득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획득정책,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시 CALS 체계구축으로 상호 연계된 동시공학적 품질개선 활동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산업체에서는 해당 생산장비에 대한 “품질개선 사례 및 효과”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군수품의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호응을 얻었다.

금번 품관소가 주관한 학술세미나는 관련기관의 주제발표를 통해 양산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품질보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군,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

21세기 전쟁양상에 대비한 항공우주무기체계 인프라 구축 강조



는 「21세기 우주무기체계 구축과 공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21세기의 전쟁 양상은 정보전, 정밀타격전,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하면서 “미래 전쟁에서는 군사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하는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인프라 구축이며, 공군은 우주인프라 구축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군 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항공우주정책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인원 1,000여명의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군발전, 항공우주무기체계의 2개 분과로 나뉘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외 항공우주관련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첨단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전시하였다.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에서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

항공우주무기체계전시회는 3일간에 걸쳐 63빌딩 1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내·외 15개의 무기체계 관련 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38개의 부스에서 항공기모형 및 엔진, 위성 및 로켓, 정찰체계, 통신체계, 항공기 탑재장비, KT-1 관련 개발품 등을 전시하여 첨단 항공우주무기체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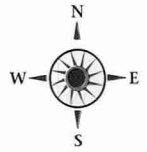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형 무인항공기 실물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신공’을 비롯해 함대함 미사일, 인공위성 추적기 등이 전시되어 21세기 무기체계의 발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무기체계 전시회 브리핑을 듣는 주요인사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모형 등을 전시한 KAI





▲ SAR 위성 모형 등을 전시한 ADD 부스



▲ 각종 위성과 발사체, 무인항공기 등을 전시한 항공우주연구소

『지상군 페스티벌 2002』 열려

「벤처 국방마트 2002」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의장대 시범

할 수 있는 육군의 상징행사로 마련한 것이다.

「지상군 페스티벌 2002」 축제는 육군이 대전광역시



특공무술 시범

육군 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의 미래지향적 모습과 Vision을 소개하는 한편, 민·관·군이 함께 하는 대형 축제인 「지상군 페스티벌 2002」 행사를 10월 17일부터 3일간 계룡대,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지상군 페스티벌 2002」는 육군이 우리 안보의 주력으로서 창군 이래 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고 급변하는 미래안보환경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으나, 이를 공감할 수 있는 민·군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미흡했음을 인식하고, 올해 최초로 국민과 함께



군악대 연주

와 공동 주최하는 벤처 국방마트를 비롯, 전시회(지상 무기 전시회, 육군 홍보관 운영, 장병 진중창작품 전시회), 학술회의(대학생 안보토론회, 지상군 정책 심포지엄,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청소년 경연대회(전국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 꿈나무 골프대회, 서바이벌 대회, 로봇 경진대회, 모형헬기 경기대회, 안보 창작대

회), 이벤트 행사(주한 무관단 초청행사, 특공 무술·군악·의장시범, 헬기축하비행, 특전사 고공강하) 등 4개 부문 16개 세부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벤처기업의 방산관련 우수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이 거대한 국방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과 벤처와의 만남」이란 주제

▼무인감시 자동사격시스템 실물을 선보인 KAI



▼ 각종 컨넥터와 케이블을 전시한 연합정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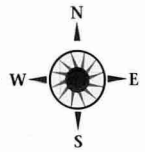
◀ PC 정보보호 시스템 아모클래드를 소개한 드림정보기술



▲ 열영상 조준경과 야간단안경을 전시한 이오시스템



▲ 대함레이더, 해안감시레이더 등을 선보인 엠텍



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린 「벤처국방마트 2002」는 대전광역시와 육군본부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의 후원으로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외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주한 국방무관단을 참관시켜 홍보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가

늘하는 자리로, 또 군전력개발관계자 및 방산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지상무기체계발전 세미나, 지상군정책심포지엄 등을 인근에서 개최하여 복귀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 전시장과 갑천변에는 최신 지상무기를 전시하였다.

▼참관인에게 많은 주목을 받은 K1A1과 구난전차



▼대형수송헬기 CH-47. 내부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 자주대공미사일 천마와 자주대공포 비호의 위용



▲ K9㉞, K-55㉞가 함께 자리했다.



▲MD-500 기본형과 투우탑재형이 함께 전시되었다.